

제4차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포럼」 개최

지난 7월 19일(화) 오후 6시, 농업기술진흥관 2층 중강당에서 연구회원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는 신영숙 과장(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이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장수마을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뒤이어 약 1시간 30분가량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 후 본 협회 강춘성 회장이 당부와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 주제발표 주요 내용

○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전통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2002년도 9개소를 시작으로 2005년 현재 21개 마을이 지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0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당 1개소씩 시

범 조성하여 총 160개소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테마마을 특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농촌진흥청의 프

로젝트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인의 일거리 발굴,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이다. 2005년 100개소를 시범육성(총 44억원)하여 3년간 연속 지원을 할 예정이며 2008년까지 전국 800~1천2백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토론내용

-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버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촌마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사람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등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차별화가 되지 않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전통테마마을과 차별화 되면서도 사회적 흐름에 맞는 사업이긴 하나, 대국민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동양의학, 요가, 풍수, 족보 보는 법, 차례상 차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도시 노인들의 장기체제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사업비 1억 4,200만원은 다소 부족하므로 하드웨어 보다는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 농촌관광 관련 고객대상이 주로 어린이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농촌진흥청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모든 노인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 기타 토론 내용

- 각종 농촌관련 사업을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지금은 시작 단계이므로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적통합능력과 주민의 자발능력을 키우기 위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민간 연구회에서 토론을 통해 진행해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농촌관련 사업이 행정이 먼저 자금을 지원하고 상향식 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압도해서 행정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도 스스로 잘하는 마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없이 성공한 마을 베스트 10”을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포럼」에서 정하여 보도 자료를 내고 휴가가기 운동 등도 전개하자.
- 다음 연구회에서는 이런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찬반 관계자를 초빙하여 함께 토론해 나가는 것이 연구회의 올바른 운영방안일 것이다.

제5회 「도농녹색교류연구회 포럼」은 9월 13일(화) 오후 6시에 개최한다(8월에는 개최하지 않음).

포럼 관련 문의 : 박영선(도농녹색교류연구소
부소장, HP: 011-688-0397)